

# 정영문의 『어떤 작위의 세계』에 나타나는 무위사상 연구

이보라\*

1. 서론
2. 『어떤 작위의 세계』와 무위
  - 2-1. 실존과 해체, 정영문 초기 소설에 대한 주석
  - 2-2. 실존에서 무위로의 이행
  - 2-3. 최선의 저항,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
  - 2-4. 절대적 자유, 소요유(逍遙遊)
3. 결론

## 국문요약

소설가 정영문은 데뷔 이후 16년 동안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히려는 문학적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어떤 작위의 세계』(2011)이전에 주목 받았던 그의 작품들은 실존에 대한 탐구이거나 언어의 유희였다. 카프카적인 허무주의를 기저로 하는 그의 무의미와 무용의 글쓰기는 존재 자체의 절망을 직시하거나 삶의 무의미와 대결한다. 그래서 정영문의 작품은 소설가와 세계 사이의 모순과 대립이며 투쟁으로 해석되었다.

정영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은 그 이전의 작품세계로부터의 변화와 새로운 생성 때문인데, 『어떤 작위의 세계』에는 권태, 실존, 해체를 거쳐 무위의 사상적 표정이 짙게 나타난다. 인위적이고 문명적인 것에 대적해온 그의 글쓰기는 인간중심으로부터 자연중심으로 회귀하며, 나

---

\* 소설가, 동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

아가 인간이 지닌 본래성으로 회귀한다. 따라서 『어떤 작위의 세계』에서 주인공을 통해 나타나는 무위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하다. 그것은 안개와 같이 추상적이고 물과 같이 흐르며 자연의 모습으로 창출된다.

그는 이 소설 속에서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를 작동방식으로 현실에 최선의 저항을 한다. 소요유를 작동방식으로 현실을 초월하고 절대 자유를 꿈꾼다. 『어떤 작위의 세계』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작위의 삶을 살게 하는 욕망이 유희로 승화된다. 그것은 주인공의 끊임없는 무욕의 상상과 유희의 글쓰기를 통해 가능해진다. 이처럼 정영문은 소설 속에서 구름처럼 떠다니거나 변화하며 흐른다.

필자는 동양적 세계관, 특히 노장철학의 사유를 바탕으로 정영문의 작품을 분석했다. 어떤 작위의 세계는 무위의 허구의 세계이다. 그의 글쓰기는, 작위으로써 완성해갈 수밖에 없는 삶과 마주해 있는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최선의 방책으로 해석된다.

(주제어: 무위, 정영문, 상상, 저항, 자유, 무의미, 소요유, 욕망, 뜬구름, 무용, 유희, 초월, 본성, 한국문학)

## 1. 서론

1996년 『작가세계』 겨울호에 장편 소설 『겨우 존재하는 인간』으로 등단한 소설가 정영문<sup>1)</sup>은 등단 초기 문단의 꾸준한 관심을 받았다. 그는 『검은 이야기 사슬』(1998), 『하품』(1999), 『나를 두둔하는 악마에 대한

1) 1965년 경남 함양 출생. 1996년 장편 소설 『겨우 존재하는 인간』으로 등단. 소설집 『검은 이야기 사슬』, 『목신의 어떤 오후』 등과 중편소설 『하품』, 장편 소설 『달에 홀린 광대』, 『바셀린 붓다』, 『어떤 작위의 세계』 등이 있다. 동서문학상, 한무숙문학상, 동인문학상, 대산문학상 수상.

불온한 이야기』(2000), 『핏기 없는 독백』(2000), 『더없이 어렵פות한 일요일』(2001) 등을 발표했고 1999년에 단편집 『검은 이야기 사슬』로 제12회 동서문학상을 받았다. 2002년에는 『문학동네』 9권 2호(통권31호)에서 젊은 작가 특집을 통해 그를 소개했다.<sup>2)</sup> 그의 작품에 대한 평론이 2002년까지 여섯 차례 실릴 만큼, 초창기에 그는 여러 비평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그를 다룬 주요 평론은 세 편에 그쳤는데, 그 가운데 한 편은 번역에 관한 것이었다.

2011년 장편 『어떤 작위의 세계』<sup>3)</sup>를 발표한 정영문은 이 소설로 2012년 제17회 한무숙문학상, 제43회 동인문학상, 제20회 대신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sup>4)</sup> 그는 이 소설 서언에서 “지극히 사소하고 무용하며 허황된 고찰로서의 글쓰기에 대한 시도, 혹은 재미에 대한 나의 생각, 혹은 사나운 초록색 잠을 지는 무색의 관념들, 혹은 뜬구름 같은 따위의 부제를 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적었는데, ‘지극히 사소하고 무용하며 허황된 고찰로서의 글쓰기에 대한 시도’, ‘성공을 반납하고 방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2010년대의 시공간에서 왜 주목받는지를 분석하게 하며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궁리하게 한다.

『어떤 작위의 세계』 이전에 정영문의 소설은 실존에 대한 탐구이거나

2) 이 특집에는 이수형, 『반복과 차이에 대한 다섯 개의 주석 : 정영문론』, 『문학동네』 제31호, 2002. / 함정임, 『이것은 정영문이 아니다 : 깃털의 현상학』, 『문학동네』 제31호, 2002. / 또한 동권에서는 그의 자전소설 『파괴적인 충동』이 실렸다.

3) 정영문, 『어떤 작위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11. 이후 이 소설의 인용은 쪽수만 밝히겠다.

4) 『어떤 작위의 세계』에 대한 심사평에 따르면, 그의 소설은 “비(非)서사 소설의 진경을 보여주며 새로운 경지와 발화 지점에 이르렀고(대산문학상 심사평) “시작 페이지를 제 맘대로 정할 때마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발생시키는데……승리자에게는 한 길밖에 없으나 성공을 반납하고 방랑을 선택한 사람 앞에는 무한한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동인문학상 심사평) “사실적 세계를 속을 뒤집어 허구의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갖추고 있다.”(한무숙문학상 심사평)

언어의 유희였다. ‘권태와 무관심의 절정’이었으며(『하품』, 1999), ‘낮설고 어두운 삶의 비의를 날카롭고도 진지하게 파고들었으며’(『검은 이야기 사슬』, 1999), ‘욕망을 최소화하고 모든 기호, 주체 등의 의미를 생산하는 것들이 무의미함을 폭로하고, 자아마저 해체하려는 움직임’이었으며(『뺨기 없는 독백』, 2000), ‘무한대로 접힌 꿈들의 끝없는 순환’이었고(『꿈』, 2003), ‘사물과 행위에 대한 자유롭고 매혹적인 언어놀이’였다(『바셀린 붓다』, 2010). 그런 경향은, 이 시기 많은 평론가들이 기술하듯이, 실존 또는 해체에 닿아 있었다.

이전의 소설과는 달리, 아니 이전에도 그런 경향이 잠재적으로 내재했는데, 『어떤 작위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의 소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 하나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sup>5)</sup> 정영문은 이 소설이 “지극히 사소하고 무용하며 허황된 고찰로써의 글쓰기에 대한 시도, 혹은 재미에 대한 나의 생각, 혹은 사나운 초록 잠을 자는 무색의 관념들 혹은 뜬구름 같은 따위”(7쪽)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뜬구름 잡는 것에 관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며 “이 소설이 뜬구름처럼 아무런 핵심이 없는 것”(270쪽)이라고 매듭짓는다. 그리고 핵심이 없고, 핵심이 없음이 핵심인 세계가 나타난다. 그것은 그가 말하듯이 ‘완벽한 작위의 세계’이며 ‘이상한 무위의 세계’이다. “의미와 무의미가 존재와 비존재가, 우연과 필연의 차이가 사라져 경계가 모호한 그 작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맥락이 없었고, 뭔가가 일어나도 그만이고 일어나지 않아도 그만이었다. 그 세계는 이상한 무위의 허구의 세계이기도 했다.”(190쪽)<sup>6)</sup>

5) 정영문은 “한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의식의 진화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데 그의 소설에서도 이런 의식의 진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사유, 『그는 어디에도 없는 곳을 향해 간다 - 소설가 정영문을 만나다』, 『십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2012.8.

6) 이런 서술이 어떤 작위의 세계에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는 2000년에 발표

실존과 해체에서 출발한 그의 글쓰기는 존재에 대한 탐구를 거쳐 이제 무위에 닿아 있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다. 그가 1990년대에 천착한 곳이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면 2010년대에 도달한 것은 동양의 무위적 세계관이다. 이것이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주제이다. 『어떤 작위의 세계』에서 정영문은 이전과는 달리 ‘무위’를 말한다. 그가 이전에 실존과 해체에 기대었던 것도, 이 소설에서 무위에 기대는 것도 인간의 진정한 ‘핵심’을 찾기 위해서일 것이다. 한국의 평단은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 같은 서구적 개념으로 소설을 해석한다. 그러나 필자는 모더니즘이 아니라 동양적 사유를 통해 소설을 해석하려 한다. 이것이 유일한 해석은 아니겠으나, 이 논문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해서, 정영문의 장편소설 『어떤 작위의 세계』에 나타난 무위가 어떤 사상적 표정을 함축하고 있는지 분석하겠다.<sup>8)</sup>

---

한 『중얼거리다』에서 “내가 요즘 들어 진지하게 숙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희의 문제야. 필요와 당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절대적 자유라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유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중요한 한 요소로서의...어쨌든 유희의 문제는 평생 내가 고민해온 문제야.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숙제이기도 해.”(12쪽)라고 하여 장자식의 자유와 유희의 문제에 접근한다.

7) 노장사상의 핵심인 무위자연(無爲自然)은 인위적인 조작이나 욕심 없이 흐름대로 사는 것, 자연의 상태 그대로 사는 것, 이런 삶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에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自然)은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이며, 무위는 실제로는 있지만 없는 듯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 무위자연은 ‘도(道)’속에 집약되어 있다. 노자는 무위를 도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장자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무위의 장자적 형태인 소요유(逍遙遊)를 도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 정영문의 소설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소요유이다.

8) 정영문의 소설 뿐 아니라 한국의 현재 활동하는 소설가의 작품을 무위의 시각으로 해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선행 연구의 부재는 이 논문의 전개를 어렵게 하나 동시대의 소설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 2. 어떤 작위의 세계와 무위

### 2-1. 실존과 해체, 정영문 초기 소설에 대한 주석

정영문 소설에 대한 학문적 차원의 평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를 파악할 수 있는 매개물은 지금으로서는 평론에 국한돼 있다. 그 해석들은 학술지가 아니라 문학지와 그의 소설집에 실렸다. 초창기 평단은 그에 대해 단일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sup>9)</sup> 비평가들이 지적하듯이 그의 서사 방식이 인물과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서일 텐데, 김춘식은 그를 두고 ‘파격적’, ‘이단적’이라는 단어로써 설명했다.<sup>10)</sup> 먼저 그가 지난 16년 동안 발표한 소설집 또는 소설들의 핵심 주제를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하겠다.

▷ 『겨우 존재하는 인간』, 1997.

챗바퀴 돌듯 되풀이되는 따분한 일상인 권태로부터 탈출을 모색한다.

▷ 『검은 이야기 사슬』, 1998.

허무주의적이고 종말론적인 색채로 사유를 가득 채운다.

▷ 『하품』, 1999.

무모한 글쓰기가 놓이고자 하는 (무)의미의 공간상의 지점을 찾지만 찾이지 않는다.

▷ 『핏기 없는 독백』, 2000.

혼돈과 환멸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끝없는 도주를 꿈꾼다! 그 끝은 죽음이다.

▷ 『나를 두둔하는 악마에 대한 불온한 이야기』, 2000.

권태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 그러한 존재의 조건에 일탈이나

---

9) 김경수, 「작가 정영문의 새로운 소설 시도 : 자신만의 장르적 변별성, 확고한 개인 문법」, 『문학사상』, 341호, 문학사상사, 2001, 52쪽.

10) 김춘식, 「미완성의 시간과 권태, 탈주의 글쓰기」, 『검은 이야기 사슬』, 정영문, 문학과 지성사, 1998, 252쪽.

전복의 시도가 그로테스크한 상상력과 블랙 유머를 통해 구체화된다.

▷ 『더없이 어렴풋한 일요일』, 2001.

권태에 대한 긴장을 해제하고 권태에 존재론적 독자성과 발달한 개성을 부여함으로써 권태에 부역하며, 한없이 투명하고 무의지한 생애들을 의미 있게 발굴한다.

▷ 『중얼거리다』, 2002.

모든 것은 배역이다. 의미의 부정과 무의미를 향한 충동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 『꿈』, 2003.

작중 현실과 허구의 환유적인 구조를 드러낸다. 꿈을 꾸다. 꿈에서 다시 꿈을 꾸다.

▷ 『달에 홀린 광대』, 2004.

중얼거리면 현존재들이 떠받드는 진리는 비본래적인 가치로 뒤바뀌고, 현존재들의 진리를 향한 실천은 소음과 소란으로 전도된다.

▷ 『목신의 어떤 오후』, 2008.

어떤 희망도 욕망도 없이 최소한의 삶만을 유지하면서도 오히려 즐거워 보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식의 한쪽 끝이 떨어져 나간다.

▷ 『바셀린 붓다』, 2010.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 내가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이다. 삶에 빛이 아닌 어둠을 비춰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정영문의 소설을 1997년부터 2003년까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2011년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누려 한다.<sup>11)</sup> 제1기의 소설들

11) 정영문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구분한 근거는 초기작들은 지나치게 무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거북하게 짓누르는, 어둡고 무거운 소설을 쓰는 작가로 낙인찍히게 된 계기가 되었죠. 자초한 일이죠. 지금에 와서는 나 스스로도 그것들을 다시 읽는 것이 몹시 버거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작품들에서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다루고 있는 주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처리하는 방식이 경쾌해진 게 『달에 홀린 광대』에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쓰인 『목신의 어떤 오후』, 『바셀린 붓다』, 『어떤 작위의 세계』 등은 유쾌하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소설을 읽어 보지 않은 독자에게는 가장 최근작인 『어떤 작위의 세계』를 권하고

은 권태로부터 죽음으로의 이행이 핵심이다. 제2기의 소설 세 편에서는 존재 자체에 대한 탐구가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하려는 제3기의 소설이 있다.

정영문의 초창기 소설에 드러난 주제는 ‘권태의식’이었다. 문명사회의 질병인 권태는, 정영문에게서, 독백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남은 삶을 혼자 견뎌내야 한다는 맹목성과 그 불가피함으로부터 출현한다.<sup>12)</sup> 권태의식은 그렇게 유지되는 삶 자체가 죽음의 양해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더욱 근본적인 인식과 맞물리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의 심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초창기 정영문의 소설은 이야기를 희생하고 얻어진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내면적 리얼리티의 가능성을 탐색한다.<sup>13)</sup>

이어지는 해석은 해체이다. 김형중은 정영문이 데리다 해체론의 요체를 소설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면서 두 사람을 결합한다.<sup>14)</sup> 정영문은 기존의 서사를 거부하고 스스로 의미를 지우는 문장들로 소설을 쓴다. 이에 대해 김형중은 이전 시대의 자명한 논리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에 판지를 걸고 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의미의 자명성에 판지를 거는 정영문의 소설에서는 언뜻 자명해 보이는 어떤 논리도, 차연 운동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어서 모든 의미는 차이들의 체계적인 유희를 통해서만 생성되며 시간적으로 그 의미는 끊임없이 연기되고 유보된다.

싶어요. 이 작품부터 시작해 역순으로 읽어도 될 거예요.” 한사유, 「그는 어디에도 없는 곳을 향해 간다 - 소설가 정영문을 만나다」, 『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2012, 8.

12) 김경수, 「작가 정영문의 새로운 소설 시도 : 자신만의 장르적 변별성, 확고한 개인 문법」, 『문학사상』 341호, 문학사상사, 2001, 57쪽.

13) 김경수, 「작가 정영문의 새로운 소설 시도 : 자신만의 장르적 변별성, 확고한 개인 문법」, 『문학사상』 341호, 문학사상사, 2001, 58쪽.

14) 김형중, 「변진(變轉)하는 이항대립, 혹은 이상한 가역 반응 : 김연수·박성원·정영문의 소설에 대하여」, 『문학동네』 제28호, 문학동네, 2001, 471쪽.



단일한 평가가 어려우면 몇 개의 개념을 동원해야 한다. 그렇게 한 이가 이수형이다. 그는 정영문의 초창기 소설에 대해 패러독스, 그로테스크, 흉내 내기, 죽음, 타자 등 다섯 개의 주석을 붙였다. 이 다섯 개념을 통해 이수형은 “그는 이야기하되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따라서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뿐임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말을 바꿔 앞선 발화의 의미를 부정하는 작업에 의해 느릿느릿 진행된다.”고 묘사한다.<sup>15)</sup> 그는 대부분의 작중 인물들이 자아를 포기한 채 의미에 대해, 문명에 대해, 주체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만, 차이로만 존재한다고 말한다.<sup>16)</sup> 스스로 타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동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네 골목길을 신나게 질주하던 아이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sup>17)</sup> 정영문의 초창기 소설에서 발견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는 무위를 예견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그는 끊임 없이 사물의 핵심을 찾아나서는 소설가이다.

김윤식은 정영문의 『파괴적인 충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의 창작 방식이 인간 심리의 콤플렉스,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절대 모순이랄까 굳이 논리화한다면 역설적 형식의 형상화”<sup>18)</sup>라고 말하며 그의 글 쓰기 방식은 내재와 초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파괴적인 충동』은 일종의 자전소설인데 김윤식은 언급하기를 “그에게 소설은 ‘순수의식’

15) 이수형, 『반복과 차이에 대한 다섯 개의 주석: 정영문론』, 『문학동네』 제31호, 문학동네, 2002, 166쪽.

16) 이수형, 『반복과 차이에 대한 다섯 개의 주석: 정영문론』, 『문학동네』 제31호, 문학동네, 2002, 180쪽.

17) 이수형, 『반복과 차이에 대한 다섯 개의 주석: 정영문론』, 『문학동네』 제31호, 문학동네, 2002, 182쪽.

18) 김윤식, 『아, 서정인 : 오수연에서 정영문까지』, 『문예중앙』 제99호, 중앙일보사, 2002, 408쪽.

의 전개에 다름 아닌 것이며 따라서 그가 쓴다는 자전소설은 ‘순수의식’을 위한 보조선에 지나지 않는다”며 순수의식을 부각한다.<sup>19)</sup> 그러나 김윤식은 정영문에 대한 평론을 여기에서 중단했다. 그 순수의식이 어떻게 심화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탐구 과제가 되었다.

백지연은 정영문의 소설이 극단적인 언어유희를 통해 의미의 중심을 해체한다고 말한다.<sup>20)</sup> 백지연이 주목하는 핵심은 ‘꿈’과 ‘기억’이다. 그것들은 연관 없는 이미지들이 서로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띠고 출현하는데 이렇게 볼 때 정영문의 소설에서 모순은 모순이 아니다. 모순은 정영문 소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의미의 해체가 메타픽션적인 성찰을 이끌어내는 데로 이어진다.<sup>21)</sup> 의미의 중심을 끊임없이 해체하는 작업은 서술하는 주체마저도 텅 비워버리는 이야기의 종점까지 다다른 것이다. 의미의 중심을 해체하면 모든 것이 병렬적으로 놓인다. 백지연은 소설 속 수많은 인물들이 서로의 소통을 단절한 채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 황막한 풍경이야말로 정영문이 보여주는 리얼한 현재라고 말한다.<sup>22)</sup>

2004년 이후 정영문의 소설들에 대한 평론은 두 편이다. 이 가운데 『목신의 오후』를 분석한 이준경은 이전과는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그는 정영문의 소설을 느낌의 미학이라 설명하면서 문학과 실존에 대한 메타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말한다.<sup>23)</sup> 이전에 정영문 소설의 화두가 권

19) 김윤식, 『아, 서정인 : 오수연에서 정영문까지』, 『문예중앙』 제99호, 중앙일보사, 2002, 411쪽.

20) 백지연, 『문학적 자의식의 두 형태 : 정찬과 정영문』, 『문학판』 제3호, 열림원, 2002, 303쪽.

21) 백지연, 『문학적 자의식의 두 형태 : 정찬과 정영문』, 『문학판』 제3호, 열림원, 2002, 311~312쪽.

22) 백지연, 『문학적 자의식의 두 형태 : 정찬과 정영문』, 『문학판』 제3호, 열림원, 2002, 310쪽.

23) 이준경, 『존재와 의식을 위한 반복과 변주의 수사학 : 정영문론』, 『한국문학평론』 제

태와 죽음이었다면, 『목신의 오후』의 화두는 죽음을 향해 놓여있지 않다고 한다. 정영문에게 죽음은 끝없이 소통할 수 없는 언어를 증얼거리는 행위의 ‘해결’로 묘사된다. 정영문은 “근대의 질서가 불러온 주체 즉 합리적 이성의 절대적 맹신과 그로 인해 확산된 신흥종교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과학과 원칙, 법치주의에 대한 맹신 등으로 사멸되어 버린 실재의 인간, 즉 인간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들을 강제 퇴거 당한, 인간성의 환원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말한다.<sup>24)</sup>

정영문은 『꿈』에서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는 꿈을 꾸는데 그치지 않고 꿈 안에서 다시 꿈을 꾸다. 서장의 집에서 잠에 들었는데 깨어보니 그곳은 돼지우리였다. 서장의 집이 꿈인지 돼지우리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서장의 집이 돼지우리일지도 모른다. 『달에 홀린 광대』에서는 진리와 비본래적인 가치의 구분이 사라진다. 현존재들이 진리를 향해 외치는 실천은 소음과 소란으로 바뀐다.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의미가 없는지 구분 되지 않는다. 모두가 의미 있어 보이지만 동시에 모두가 무의미하여,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을 보는 듯하다.

『목신의 어떤 오후』에서 정영문은 가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다. 어떤 희망도 욕망도 없이 최소한의 삶만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삶이 즐겁다. 나도 모르게 내 의식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도 오히려 즐겁다. 『바셀린 붓다』에 이르러서는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라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이 침묵해야 한다고 한 것을 이 소설가는 말하려 든다. 그의 말하기는

34호,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8, 316~317쪽.

24) 이준경, 『존재와 의식을 위한 반복과 변주』의 수사학 : 정영문론, 『한국문학평론』 제 34호,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8, 332쪽.

『어떤 작위의 세계』로 이어진다.

정영문 소설에서 초창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개념들은 실존과 해체, 차이이다. 실존으로서의 권태와 해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의 차이, 내재와 초월로서의 실존, 의미의 중심에 대한 해체 등이 정영문의 초창기 소설을 설명하는 개념들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서술의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난다. 아무것도 아닌 것, 순수의식, 메타픽션적인 성찰, 인간성의 환원 등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서구식의 실존이나 해체에 머물기만 할 것인가라고 묻게 된다. 물론 제1기에서도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 그는 2000년 발표한 『나를 두둔하는 악마에 대한 불온한 이야기』에서 인간과 식물의 결합을 꾀하는데 이런 묘사에서 실존과 해체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예견하게 되는 것이다.<sup>25)</sup>

## 2-2. 실존에서 무위로의 이행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의 소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의 출발이 어느 지점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초창기 그의 문제의식은 20세기 문학의 흐름을 바꾸었다고 평가되는 카프키를 패러디한 것이었다.<sup>26)</sup> 아래 문장에는 그런 패러디가 응축돼 있다. 그는 서로 모순되는 무조건적 사랑과 혐오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말한다.

25) 이 소설에는 오리나 닭, 염소 등 여러 동물이 나온다. 이 동물은 오히려 그보다 더 인간적인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띤다. 화자보다 고집이 세고 ‘자신의 말조차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염소,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닭, 화자를 깔보고 화자의 무리한 일상을 방해하는 거위 등이 그렇다. 화자와 동물들의 관계는 희화적이다. 이 소설에서는 인간보다 인간적인 동물에 대한 묘사가 작위적이지 않다. 그것은 생의 의지를 잃은 무위의 인간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다.

26) 그가 1998년에 발표한 『검은 이야기 사슬』은 카프키를 패러디한 것인데, 이 소설집에는 마흔다섯 편의 엮편소설들이 실려 있다.

내게는 조국·고향·가족과 같은, 나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만큼 기이한 사랑의 형태는 없어. 나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끝없는, 근본적인 배반을 꿈꾸게 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헤아릴 길 없는 사랑의 강요에 실린 중압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그것에 전제된 당위에 대한 혐오감이지, 그것들에 대해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진정한 사랑이지.<sup>27)</sup>

카프카에 대한 패리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카프카와 정영문은 똑같이 모순어법을 구사한다. 모순어법은 한 단어 한 단어를 연결해 문장을 만들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축조하다가, 문득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길)을 전면 부인하거나 싹둑 잘라버림으로써 무효로 돌리는 서사법이다. 다만 정영문이 한 단락, 또는 한 장면 끝에 이르러 매번 서사의 흐름을 뒤엎는 전복의 방식이라면, 카프카는 한 문장 안에 배치된 어휘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28)</sup>

둘째, 카프카의 소설처럼 정영문의 소설도 거대한 꿈의 파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모순어법이 글의 형식이라면 꿈의 파편은 글의 내용이다. 카프카와 정영문에게서는 어떤 소설도 결국은 꿈이라는 제국으로 귀속된다. 그 꿈은 때로는 성으로 때로는 굴로 대체되기도 한다.<sup>29)</sup>

두 번째 특징과 관련해 카프카와 정영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입구를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하는 꿈(악몽)이 카프카 소설의 본질에 해당한다면, 정영문의 꿈은 리즘이나 굴, 성을 향한 강박이 제거돼 있고, 대신 '지극히 사소하고 무용'한 말놀이가 서사의 동력을 형성하고 있다.<sup>30)</sup>

27) 정영문, 『검은 이야기 사슬』, 문학과 지성사, 1998, 144쪽.

28) 함정임, 『소설, 어떤 무용(無用)의 세계』, 『신동아』, 640호, 동아일보사, 2013.1, 580쪽.

29) 정영문 스스로도 자신이 카프카를 읽어서 소설가가 됐다고 말한다. 한사유, 『그는 어디에도 없는 곳을 향해 간다 - 소설가 정영문을 만나다』, 『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2012.8.

30) 함정임, 『소설, 어떤 무용(無用)의 세계』, 『신동아』 640호, 동아일보사, 2013.1, 581쪽.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 카프카는 그 점을 고민했다.<sup>31)</sup> 이를 끝까지 추론하면 결국은 신(적인 것)과 나 사이에 놓인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카프카는 그 정체성의 출구를 찾지 못하기에 주어진 곳에 머무는 모순된 행태를 취한다.

정체성의 문제는 정영문 소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의 소설에도 구원에 대한 역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sup>32)</sup> 그 역설의 실상은 허무주의 사고의 기원이 되는 자본주의적 근대 문명에 대한 회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sup>33)</sup> 그는 『겨우 존재하는 인간』에서 권태를 자본주의의 산물로 묘사한다. 그런데 카프카와 달리 그의 허무주의는, 구원이 깃들이지 않는 집을 버리는 결단이며, 이 세계의 외부에 있는 희망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따라서 정영문은 위 인용문에서처럼, 근대적 인간 중심주의 역사관의 배후에 있는 조국·고향·가족을 버리고 밖으로 나선다.<sup>34)</sup> 그의 글쓰기는 당위에 대한 혐오와 배반의 꿈꾸기이기에 정형화된 형식을 추방한다. 그는 소설에 대해 “이 세계의 궁극적인 무의 무의미에 대한 복수”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그 복수는 “무용하고 가망 없는 복수”이다. 무와 무의

31)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성장하는 법이죠.” Janouch, G., 편영수 역, 『카프카와의 대화』, 문학과 지성사, 2007, 91쪽.

32) 김춘식, 『미완성의 시간과 권태, 탈주의 글쓰기』, 『검은 이야기 시술』, 문학과 지성사, 1993, 252쪽.

33) “사람들은 근대적 양식의 삶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병폐의 근원은 우주의 근원이자 만물의 자연스런 운행 법칙인 무위자연의 도를 거슬러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왜곡된 삶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이찬훈, 『노자의 탈근대적 모티브』, 『철학연구』 제97집, 대한철학회, 2006, 296쪽.)

34) 근대성이 가진 가장 핵심적 입장은 인간만을 고귀하게 여기며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인간중심적인 삶이다. 이것이 거부되지 않는 한 현대는 근대성으로부터 탈피할 수 없다. 조국과 고향과 가족에는 오직 인간만이 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버림은 근대성으로부터의 탈피이다.

미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그것들을 상대하는 데는 절대적인 패배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에게 소설은 그 패배에 대한 어떤 처절하고도 우스꽝스러운 기록이다.<sup>35)</sup>

정영문은 현실 세계의 무와 무의미에 맞서며, 카프카를 패러디한다.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난쟁이나 꼬추 같은 불구형 인물은 카프카의 소설에서처럼 존재의 왜곡·억압·정신적 원죄 등을 상징한다. 그 인물들은 절대적인 패배밖에는 가질 것이 없는, 절망의 극단에 존재하는 근대인의 소외 의식을 보여준다. 카프카는 자기 자신의 출구를 찾지 못했다. 이에 반해 정영문은 출구를 찾는다. 그는 실존에서 시작해 해체를 거쳐 어떤 출구를 끊임없이 모색한다.

정영문의 실존적 소외 의식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 나는 사람들의 말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해”라고 삶의 관계들에 회의하게 하며, 나아가 삶 그 자체에 대한 절망과 회의로 이어져, 살아있음에도 “눈을 감으면 무덤 속에 누워 있는 나의 모습이 만져질 정도야. 코를 막으면 차마 맡기 역겨운, 나의 안에서 이미 썩어가고 있는 시체 냄새가 나기도” 하는 데에까지 이른다.

나는 최근 들어 더 전락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전락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나의 그 전락에는, 마침내는, 내가 나 자신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야 끝날 그 비루한 삶의 지속에는, 완전한 해체와 마모의 순간에 느끼게 되는 자유에 대한 열망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sup>36)</sup>

35) 한사유, 『그는 어디에도 없는 곳을 향해 간다 - 소설가 정영문을 만나다』, 『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2012.8.

36) 정영문, 『겨우 존재하는 인간』, 세계사, 1997, 113쪽. 이와 유사한 서술은 『검은 이야기 사슬』에도 나온다. “나는 다시 갑작스런 침묵에 잠겨 한참을 누워 있지만 아무 일도,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한하게 늘어진 현재 속에 모든 것이 무관

정영문은 이제 인간의 삶 밖으로 뺏어나간다. 그에게 삶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전락이 아니라, 새로운 생성이다.”<sup>37)</sup> 새로운 생성은 자유를 얻음이다. 그것은 서구철학으로는 상향추론을 통해 신적 경지에 이르는 것인데, 동양적 사유로는 하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고, 노장에서는 무위로 설명된다. 실존과 해체를 탐닉하다가 2003년 이후 오랜 모색 끝에 얻은 길은 현실로부터의 초월과 그로부터 얻은 자유였다. 그의 자유에 대한 열망은 출구를 찾으며 씩 없이 나아간다. 인간의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은 노자에 의하면 밝음을 얻는 것인데<sup>38)</sup> 정영문은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 권태에서 실존으로, 그리고 해체로 다시 꿈으로 또다시 무위로 나아가며 자유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이 소설이 어디로 나아가도 좋기 때문이고, 이것은 또한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파생하고 이탈해 그것들이 뒤섞이며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소설이다.(167-168쪽)

그가 인위적이며 문명적인 것들과 대적하면서 추구해왔던 무의미와 무용(無用)의 글쓰기<sup>39)</sup>는 또 다른 이야기가 파생하고 이탈해 뒤죽박죽이 되는 소설 『어떤 작위의 세계』로 이행한다. 이 뒤죽박죽은 인간에 의

---

하게 인접해 있을 뿐이다. 결국 나는 다시 눈을 감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건 내가 이 도량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지, 하고 힘없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옆으로 떨군다.”(83쪽)

37) 손정수, 『삶 이전,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 『하품』, 정영문, 작가정신, 2006, 111쪽.

38) “뿌리로 돌아감을 일러 고요함이라 하고, 고요함을 일러 命으로 돌아감이라 하고, 명으로 돌아감을 일러 常이라 하고, 상을 아는 것을 일러 밝음이라 한다.”(『道德經』, 16장.)

39) “『어떤 작위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그가 일관되게 탐구해온 무의미와 무용에 대한 현재적 총화다.”(함정임, 『소설, 어떤 무용(無用)의 세계』, 『신동아』 제640호, 2013.1, 동아일보사, 583쪽.)



해 그렇게 된 세계를 가리킨다. 문명의 눈으로는 로고스 이전이 혼돈의 뒤죽박죽이었겠지만 무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작위의 세계가 뒤죽박죽이다.

### 2-3. 최선의 저항, 무위(無爲)무불위(無爲而無不爲)

정영문은 『어떤 작위의 세계』를 시작하면서 “이 글은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경험되는 대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7쪽)라고 적고 있다. 그것은 그가 자기에게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해 그냥 전달할 뿐이지,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지 않고 경험한 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적고 있다. 보이고 들리는 것도 인위가 가해진 것이므로, 그는 그것마저도 부정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주인공인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무척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자 했던 히피에게는 모든 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더없이 좋은 날”(168쪽)들이었다. 삶에 닥친 문제는 하지 않으면 배기지 못할 것 같지만 막상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하는 인위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지만 동시에 도를 파괴하고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자연의 질서에서 소외된 문명사회의 삶은 외물의 노예로 전락한 삶이며, 지배와 피지배의 위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sup>40)</sup> 이런 연유로 노장 사상은 작위로써 이루어지는 문명에 대해 비판적이다. 인간의 본래성을

40) 원정근, 『왜 노장의 생명사유인가』, 『전통사상과 생명』, 국학자료원, 2003, 124-125쪽.

해치는 모든 문물제도와 욕망에 따른 행위들을 통칭하여 ‘작위’라고 규정했고 그와 달리 “무위(無爲)로써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sup>41)</sup>라고 했다. 따라서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 ‘(쓸데없이) 하는 것이 없지만 하지 못함이 없다’는 표현은 작위하지 말라는 것<sup>42)</sup>이다.

……작위로써 완성해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다. 의미와 무의미가, 존재와 비존재가, 우연과 필연의 차이가 사라져 경계가 모호한 그 작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맥락이 없었고, 뭔가가 일어나도 그만이고 일어나지 않아도 그만이었다. 그 세계는 이상한 무위의 허구의 세계이기도 했다.(190쪽)

이렇게 『어떤 작위의 세계』는 “무위이며 허구인 세계”로 인식된다. 따라서 정영문의 글쓰기는 인위적으로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것은 작위로써 완성해갈 수밖에 없는 삶과 마주해 있는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책이기도 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설에 대한 복수와, 무와 무의미, 그리고 존재의 근거 없음에 대한 복수뿐이라는 생각을 하며, 치절한 복수를 되새기며,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기이한 생각들을 하며 더욱 기이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며 샌드위치를 마저 먹었다.(242쪽)

복수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무엇, 어떤 가치 기준에 저항하는 무위의 표정으로 읽힌다. 그가 어이없는 짓을 하는 것은, 그런 짓도 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한 방식이기 때문이다.(67쪽) 그것은

41) 『道德經』, 3장.

42) “도가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존재성을 인식하는 자이며, 그 인식에 바탕하여 나름의 욕망의 체계를 떠올리는 자이기도 하다.”(윤천근, 『도가와 유가의 행위론 - 행위의 무위성과 유위성의 차이』, 『동서철학연구』제57호, 한국동서철학회, 2010, 199쪽.)

다른 존재와의 연관에 따라 규정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미발전, 미성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즉자적’ 복수가 아니라 실체에서 주체로의 전환이며, 의식의 대상에서 자기의식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대자적’ 복수이다. 작위적 억압이나 지배에 대한 이러한 저항은 주인공 나의 삶에 최선의 행위가 된다. 이런 저항의 무위는 예술의 정신과 통하는데 무위와 허구의 세계인 이 소설에서는 주로 기이한 생각과 상상, 글쓰기로 구체화된다.

잠시 나는,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할 수 있는, 때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그것들이 내게 많은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 내가 잠시나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를 생각했다.(60쪽)

주인공 나는 많은 사람들을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고상하거나 명분 있는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오직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즐기고 누리는 것으로 읽힌다. 장자는 노자가 말한 “보려고 하나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하나 들리지 않고 잡으려 하나 잡을 수 없는”<sup>43)</sup> 것, “오색·오성·오취·오미·취사선택의 감각적 대상으로부터 떠난 것”을 인간의 본성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혼돈’이다. 장자는 풍요와 충만·초월을 상징하는 혼돈이, 일곱 구멍으로 죽었다는 설화<sup>44)</sup>로 혼돈을 서술했다.

『어떤 작위의 세계』에서 주인공인 나는 점쟁이로부터 “내가 오래 전 전생에 혼란스러웠던 중국 전국시대의 어느 나라 무사”였기에 “무협지

43) 『道德經』, 14장.

44) 숙과 홀에게는 자아와 대상의 일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을 인지할 자아의 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혼돈은 자아와 대상의 일체화, 곧 만물제동(萬物齊同)이다. “천지는 나와 함께 오래 살고 만물은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다.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거기 또 무슨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莊子』, 齊物論.)

를 써야 운이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말을 할 때마다 벌어진 점쟁이 여자의 입 사이로 드러난 이들은 까맣고 불길해 보이고, 어떤 부정적인 힘이 느껴지는 이들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았다.(202쪽)” “점쟁이가 하고자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은 평생 혼란을 떨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 같았다.” “나는 언제까지라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었다.(204쪽)”

“평생 혼란하게 살아”라는 이 “오래 전부터 알 수 있었던 앞날에 대한 계시(204쪽)”를 들은 이후, 주인공 나는 블랙홀처럼 보이는 거대한 구멍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서 저항하는 꿈을 꾸다. 그리고 깨어나서, 나는 마침내 생의 슬픔과 죽음마저 극복한 초월의 상태를 경험한다.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꿈 중의 하나인 꿈을 꿔는데 그것은 내가 죽는 꿈이었다.……하지만 더 이상 꿈은 존재하지 않고 감각과 의식만 남아 있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 저 멀리 블랙홀처럼 보이는 거대한 구멍이 보였는데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꿨을 때에는 잠시 슬픔이 엄습해 왔지만, 조금 후에는 마음이 죽음을 맞은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264-265쪽)

초월의 상태를 경험함은 존재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sup>45)</sup> 그것은 ‘호접몽’이다.<sup>46)</sup> 정영문도 장자처럼 나비의 꿈을 꾸고 있다. 나는 현

45) 존재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그의 노력은 이전에도 꾸준히 표출됐다. 그는 이전의 소설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나는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그것은 나도 아는 개였으며, 그것 역시도 나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내가 그것 앞을 지날 때면 이유 없이 꼬리를 치곤했는데 그럴 때면 나는 그것을 향해 내게 그럴 건 없다고, 혼잣말을 하곤 했다.” 정영문, 『파괴적인 충동』, 『문학동네』, 2002, 여름호, 문학동네, 186쪽.

46) 장자가 소요유의 조건을 들어 설명하는 것에 ‘무공(無功)’ ‘무명(無名)’ ‘무기(無己)’가 있는데, 무기를 이루어야 비로소 자기가 사물로 바뀌는 변화를 일굴 수 있다. 그것은 호접몽의 조건이며, 나를 버림이다. 나를 버림은 초월하는 것이며, 자기와 사물의 대

실의 나이고 나비는 초월된 나이다. 동일성의 논리와 존재론으로 구축되는 세계에서라면 나는 나비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논리를 부정하는 순간 나는 나비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 동일성을 거부하고자 하는 욕망이며 그 욕망을 실현하는 지점에 도가 있다. 주인공은 호접몽을 꾸고 깨는 장자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이때 꿈과 초월이라는 맥을 이으며 드러나는 무위(無爲)의 표정은, 현실에 대한 최선의 저항이며 절대적 자유의 추구이다. 그것은 권태 - 실존 - 해체 - 꿈 - 무위로 이어지는 의식의 변화이다.

#### 2-4. 절대적 자유, 소요유(逍遙遊)

『어떤 작위의 세계』의 전반부에는 주인공이 여자 친구의 젖꼭지를 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무위자연한 사람은 천진난만하거나 소박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득·재치·작위성·이기심 또는 허황된 꿈 따위를 멀리한다. 이와 같은 묘리를 깨친 삶은 소탈하며 어린아이와도 같이 순박해진다. 정영문의 상상력은 유아적 양상을 나타낸다.<sup>47)</sup>

가만히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득하게만 느껴지고, 마치 딴 세상에 와 있는 것만 같고, 시간이 멈춘 것 같고, 고요하고 황홀하게 정지한 이 순간 너머의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생각하기도 싫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아무렇지 않게만 느껴지는 것 같고, 이 상태로 이 세상이 끝나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 다시 이 상태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다.(21-22쪽)

---

립을 소멸시키는 것이다.(왕카이, 『소요유 장자의 미학』, 신정근 외 옮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15쪽.)

47) 김태환, 『미의 무의미』, 『어떤 작위의 세계』, 정영문, 문학과 지성사, 2012, 286쪽.

소요유는 장자가 자신의 사상의 정수를 표현한 것으로, 절대적인 인간 자유 추구에 목표를 두고 그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sup>48)</sup> 그것은 정신의 최고 경지를 뜻하며, 소요의 무위에 대한 이해는 예술가의 정신·경지·기교의 숙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영문은 『어떤 작위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 며칠간 안개에 휩싸인 샌프란시스코 시내와 해변을 산책하거나, 호텔방에서 창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아주 오래도록 안개를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안개 때문에 안개에 대한, 혹은 안개와는 상관없는 어떤 글을 쓰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실제로 이 소설 속의 많은 글들이 내가 창밖으로 안개를 보거나 안개 속을 걸으며 생각해낸 것들이다.”(92쪽)

주인공 나는 “죽은 너구리와 사슴을 주로 먹으며 가끔은 과수원에 땅에 떨어진 과일을 주워 먹기도 한 히피”(177쪽)의 처지는 사슴만 못했을 것이고, 토끼를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서 연못에 갔는데 “토끼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토끼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았고”(180쪽), “여러 동물들 중에서도 꿈을 보고 싶었고” “꿈을 기다리는 일은 소용없는 짓 같았지만,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짓을 의식적으로 하고”(181쪽) 싶었으며 꿈 대신 만난 “새가 나를 놀리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고, 놀릴 테면 놀리라고 중얼거렸다.”(181쪽) 그는 2012년 다시 발표한 『목신의 어떤 오후』에서 “시간을 가게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시간이 다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되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는 문제가 되

48) 소요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한가롭게 떠돌며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유쾌하고 편안하게 자득하며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걸리는 것도 없고 꺼림칙한 것도 없다”는 뜻을 채택하겠다.

지 않았다.”<sup>49)</sup>고 적고 있다. 이것을 해체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무의미한 일상이다. 그러나 무위의 시각에서는 삶의 의미의 발견이다.

『어떤 작위의 세계』에서는 주인공 나가 끝없이 가만히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장자의 소요유와 같이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지에서 삶을 즐기는 것이다. 즉, 외적 실천으로써의 무위가 아니라 인간이 내적으로 무위를 창출한다.

정영문에게 소요유는 유희로 진전된다. 『어떤 작위의 세계』에서 인간의 욕망은 유희로 구현된다. 욕망이 유희로 나타나려면, 욕망은 욕망 아닌 것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욕망은 곧 제약과 속박이기 때문이다. 장자 식으로 표현하자면 묶어두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곧 작위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인간인 이상 욕망을 외면하거나 완전히 지양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욕망을 벗 삼아 차라리 노닌다.

나는 무료함과 우울에서 조금이라도 빠져나오기 위해 유희적인 생각에 잠기려고 애쓰며, 정신에는 유희에 대한 어떤 끈질긴 욕망 같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글은 그 욕망과의 유희에 대한 글이기도 하다.(93쪽)

유희의 글쓰기와 자유로운 상상은 이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들은 목적이나 의욕이 없다는 점에서 장자의 무용(無用)의 용(用)을 연상케 한다. “언뜻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쓰임이 된다”고 말했던 장자는, 쓸모없음으로 인해 하늘이 내려준 천수(天壽)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즉 소요유는 “비공리성·무목적성·자유성”<sup>50)</sup>이다. 이것은 영

49) 정영문, 『목신의 어떤 오후』, 문학동네, 2012, 273쪽.

50) 왕카이, 신정근 외 옮김, 『소요유 장자의 미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85쪽.

혼의 자유로운 해방이고 또한 영혼이 허무화 되는 과정이다.<sup>51)</sup> 정영문이 추구하는 것도 쓰임이 아니라 쓰이지 않음이다. 『어떤 작위의 세계』는 “의미와 논리의 과잉에 맞서 점점 더 비워지는 의미, 점점 더 무너지는 논리를 선보이는 소설”이다.<sup>52)</sup>

무위(無爲)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하며 안개와 같이 추상적이고, 물과 같이 흐르는 상상을 통해서 자유롭게 창출된다. 정영문이 무위의 허구의 세계에서 소요유 하는 것은, 장자가 현실을 초월한 이상적인 환경을 설정해 놓고 그 환경에서 소요의 유를 누리야 한다고 했던 것과 연결된다.<sup>53)</sup>

정영문은 현실이 아니라 무위의 허구의 세계인 이 소설의 마지막 장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그리고 무위일 수 없는 어떤 작위의 세계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

이 소설에는 뜬구름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내 생각에 자연계의 모든 것 중에서도 그 안에 핵심이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뜬구름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생각과 말의 어지러운 장난에 지나지 않는 이 소설이 뜬구름처럼 아무런 핵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270쪽)

그가 본 세상은 뜬구름이다. 구름에는 핵심이 없다. 따라서 세상에도 핵심이 없다. 그 핵심 없는 세상에 핵심을 만드는 것은 작위이고 유위가

---

유위가 시작되는 지점은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쓸데없는’ 공명심이다. 그 공명심이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고 해롭게 함을 이들은 본 것이다.

51) 왕카이, 신정근 외 옮김, 『소요유 장자의 미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568쪽.

52) 김연경, 「다수의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 정영문, 『어떤 작위의 세계』, 『세계의 문학』, 제38권2호, 민음사, 2013.5, 374쪽.

53) 장자는 사람이 현실에서 완전히 즐김과 완전히 아름다운 상태에 절대로 도달할 길이 없기에, 자유를 획득할 길도 없다고 생각했다. 마치 어떤 암 환자가 암을 정복하지 않고 암과 함께 노닐 듯이 장자는 자유를 정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노닌다.



다. 핵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가 소설로 묘사한 세계 역시 뜬구름과 같아야 한다. 그것은 동시에 소설 자체가 뜬구름이어야 한다. 그는 『어떤 작위의 세계』에서 세상의 핵심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뜬구름처럼 흘러가는 사건을 적을 뿐이다. 그 사건의 주체 역시 뜬구름이다.

### 3. 결론

소설가 정영문은 데뷔 이후 16년 동안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히려는 문학적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그는 전통적인 기승전결의 이야기 구조를 버렸다. 간결하고 위트 있는 문장으로 존재 자체의 절망을 직시하고, 삶의 무의미와 대결한다. 그래서 정영문의 소설은 카프카적으로 해석되었다.

『어떤 작위의 세계』에서 정영문은 다른 시각을 드러낸다. 권태롭고 무의미한 현실세계에 예술의 무의미로 대적한다. 소설가가 갖게 되는 자유에 대한 열망과 비타협적인 저항이 무위(無爲)의 표정으로 작품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때 무위는, 인간이 작위로서 완성해갈 수밖에 없는 삶을 끌어안고 초월하려는 최선의 행위가 된다.

정영문은 『어떤 작위의 세계』라는 경계가 없는 곳에 머문다. 소설가 자신일지도 모르는 주인공 ‘나’는 자신을 비우고 끊임없이 무욕의 상상을 한다. 이것은 인간 개개인의 근원적인 정신 영역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정영문은 『어떤 작위의 세계』를 통해 현실에 있지만 없는 듯한 저항을 하며,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절대적 자유의 무위를 창출해 낸다. 그는 무위의 허구 세계로 멀리 떨어져서 이리저리 거닐며 노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장자의 소요유의 재현이다.

무위사상은 노자에게서는 최선의 행위이자 적극적인 실천으로써, 장자에게서는 인간의 절대적 자유 추구 과정인 소요유로 나타난다. 춘추 전국 시대에 무위가 요청되었던 배경은 인간의 작위가 만연하여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난무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진 본래 가치를 발견하고 자율성과 자발성으로 살아가는 자연과 같은 세계, 더 나은 세계를 목적했다. 그렇다면 『어떤 작위의 세계』에서 창출되는 무위는 21세기 한국사회와 문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주목된다. 지금의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정영문에게는 “궁극적인 무와 무의미”에 불과하다. 그것을 다스리고 대적해서 패배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의 소설이 “패배에 대한 어떤 처절하고도 우스꽝스런 기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무위함으로써 우스꽝스럽지 않은 기록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장자가 가리키는 곳은 도피처가 아니다. 그는 부정적 현실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다.<sup>54)</sup> 그것은 현실의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림이고 동시에 도를 깨달음이다. ‘소요’는 사물에 얽매인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일종의 부정 정신이다. ‘유’는 해방된 자유의 공간과 그 세계에서 노닌다는 점에서 자유의식을 취하는 것<sup>55)</sup>이며 자유의식은 곧 긍정 정신이다. 따라서 소요유는 부정이면서 동시에 긍정이다. 정영문은 『어떤 작위의 세계』에서 무욕의 상상을 하며 표류할지언정, 결코 인생을 비관하지 않는다. 그는 2013년 2월 19일 KTV의 ‘인문학 열전’에 출연해서 자신의 문학이 “인생에 대한 위로보다는 존재 자체의 절망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재 자체의 절망을 있는

54) 이종성, 『소요와 노닐, 또는 걸림 없는 자유』, 『동서철학연구』, 67호, 한국동서철학회, 2013, 37쪽.

55) 이종성, 『소요와 노닐, 또는 걸림 없는 자유』, 『동서철학연구』, 67호, 한국동서철학회, 2013, 48쪽.

그대로 보는 과거의 방편이 실존이었다면, 그는 이제 『어떤 작위의 세계』를 통해 무위로 이행한다.

무위가 출현한 까닭은 만연한 인간의 작위에 대한 반성이었다. 그 반성으로 노자와 장자는 무위와 소요유를 말했고 공자는 인을 말했으며 한비자는 법을 말했다. 정영문이 무엇을 반성했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는 “삶에 빛이 아닌 어둠을 비춰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며, “주접스럽고 허접스런 것들이 사람들을 아주아주 모자라는 사람들로 만들고”<sup>56)</sup> 있는 것을 지적한다.

이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작위의 세계』는 한국 문단에서 새로운 시도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도 한국문학에서 유의미하나 동양적 사유를 통해 한국문학의 지형을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영문은 “모든 것이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 같았고, 뭔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250쪽)고 말한다. 그러나 “생각과 말의 어지러운 장난에 지나지 않는, 뜬구름 같은 이 소설”(270쪽)을 한국문단이 주목하고, 필자는 무위로서 분석해 보았다. 그런 연유로 이 소설에서 줄곧 드러나는 “사소한 변주를 동원한 동어반복,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고 심드렁한 문체”<sup>57)</sup> 등도 무위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1990년대부터 한국문학은 주로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 안에서 해석되어 왔다. 그것은 서양 철학사적인 개념이다. 서구에는 해체할 로고스 중심주의가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해체할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그 시기가 한국 문학사에서 유의미성을 가지지

56) 한사유, 『그는 어디에도 없는 곳을 향해 간다 - 소설가 정영문을 만나다』, 『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2012.8.

57) 김연경, 『다수의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 정영문, 『어떤 작위의 세계』, 『세계의 문학』 제38권2호, 민음사, 2013.5, 371쪽.

만 이제 서구의 시각만이 아니라 동양의 시각으로 문학을 해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메시지를 새롭게 창출할 수는 없을까를 궁리하게 만든다. “정영문 소설의 새로움이자 한국문학의 새로움”<sup>58)</sup>인 『어떤 작위의 세계』에 나타나는 무위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다.

---

58) 동인문학상 심사위원회 수상작 선정 이유, 『조선일보』, 2012년 10월 17일, A25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1. 기본자료

- 정영문, 『겨우 존재하는 인간』, 세계사, 1997,  
\_\_\_\_\_, 『검은 이야기 사슬』, 문학과 지성사, 1998.  
\_\_\_\_\_, 『중얼거리다』, 이마고, 2002.  
\_\_\_\_\_, 『하품』, 작가정신, 2006.  
\_\_\_\_\_, 『바셀린 붓다』, 자음과 모음, 2010.  
\_\_\_\_\_, 『어떤 작위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11.  
\_\_\_\_\_, 『목신의 어떤 오후』, 문학동네, 2012

#### 2. 논문과 단행본

- 김경수, 「작가 정영문의 새로운 소설 시도 : 자신만의 장르적 변별성, 확고한 개인 문법」, 『문학사상』 341호, 문학사상사, 2001, 51-59쪽.  
김시천, 「역사에서 이야기로 - 『노자』 『장자』의 이야기론적 해석을 위한 시론」, 『동서철학연구』 제31호, 한국동서철학회, 2004, 187-210쪽.  
김시천, 「무위(無爲)의 네 가지 개념에 관하여」, 『시대와 철학』 제 30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5, 85-105쪽.  
김연경, 「다수의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 정영문, 『어떤 작위의 세계』」, 『세계의 문학』 제38권2호, 민음사, 2013, 363-381쪽.  
김윤식, 「우리에게 카프카란 과연 무엇인가 : 윤대녕 · 정영문 · 김연경 및 김동리에 부쳐 : 「당신의 자리」, 박정란 著 / 「이방에 살던 여자는 누구일까」, 윤성희 著 『書評』, 『문학동네』 319호, 1999, 284-301쪽.  
김윤식, 「아, 서정인 : 오수연에서 정영문까지」, 『문예중앙』 제99호, 중앙일보사, 2002, 389-433쪽.  
김춘식, 「미완성의 시간과 권태, 탈주의 글쓰기」, 『검은 이야기사슬』, 정영문, 문학과 지성사, 1998, 246-261쪽.  
김태환, 「미의 무의미」, 『어떤 작위의 세계』, 정영문, 문학과 지성사, 2012, 271-294쪽.  
김형중, 「변전(變轉)하는 이항대립, 혹은 이상한 가역 반응 : 김연수 · 박성원 · 정영

- 문의 소설에 대하여, 『문학동네』 제28호, 문학동네, 2001, 454-472쪽.
- 백지연, 『문학적 자의식의 두 형태 : 정찬과 정영문』, 『문학판』 제3호, 열림원, 2002, 302-312쪽.
- 손정수, 『삶 이전,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 『하품』, 정영문, 작가정신, 2006, 105-115.
- 윤경수, 『노자의 무위자연관과 문학』, 『현대문학』 제245호, 현대문학, 1975, 230-249쪽.
- 윤천근, 『도가와 유가의 행위론 - 행위의 무위성과 유위성의 차이』, 『동서철학연구』 제57호, 한국동서철학회, 2010, 199-224쪽.
- 이수형, 『반복과 차이에 대한 다섯 개의 주석 : 정영문론』, 『문학동네』 제31호, 문학동네, 2002, 166-182쪽.
- 이종성, 『소요와 노닐, 또는 걸림 없는 자유』, 『동서철학연구』 67호, 한국동서철학회, 2013, 31-55쪽.
- 이준경, 『존재와 의식을 위한 반복과 변주의 수사학 : 정영문론』, 『한국문학평론』, 제34호,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8, 316-335쪽.
- 이찬훈, 『노자의 탈근대적 모티브』, 『철학연구』 제97집, 대한철학회, 2006, 285-313쪽.
- 이택용, 『노자의 無爲에 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72집, 동양철학연구회, 2012, 127-166쪽.
- 한사유, 『그는 어디에도 없는 곳을 향해 간다 - 소설가 정영문을 만나다』, 『십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2012.8. (온라인 매체)
- 함정임, 『소설, 어떤 무용(無用)의 세계』, 『신동아』 640호, 동아일보사, 2013.1, 580-583쪽.

- 노자, 『道德經과 왕필의 주』, 흥익출판사, 김학목 옮김, 2012.
- 박이문, 『노장사상』, 문학과 지성사, 2005.
- 신동준, 『장자』, 인간사랑, 2012.
- 조현규, 『왕필이 본 道德經』, 새문사, 2011.
- 오강남, 『장자』, 현암사, 1999.
- 왕카이, 『소요유 장자의 미학』, 신정근 외 옮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 Janouch, G., 『카프카와의 대화』, 편영수 역, 문학과 지성사, 2007.

## Abstract

### A Study of Inaction in Jung, Young Moon's *A World of Artificiality*

Lee, Bo-Ra (Donga University)

Novelist Young Moon Jung has tried to broaden the horizons of Korean literature during seventeen years since his debut. Before 2011 the year *A World of Artificiality* published, His novels has shown the quest for existence or the game of language. His writing of insignificance and uselessness, based on Kafka's nihilism, faces the despair of the existence or confronts the meaninglessness of life. Therefore Jung's novels have been understood as the contradiction, conflict and struggle between novelist and the world.

His progress from the earlier work view and new generation lets him attract an attention. In *A World of Artificiality* which is the turning point work in his writing, the ideological expression of the inaction appears deeply. His writing, having been against artificiality and civilization, revolves from the human centrism to the nature centrism and ultimately returns to the original human nature. The Inaction appeared by protagonist in *A World of Artificiality* exposes innocence like a child. It is abstract as mist, flows like stream and is created with the face of the nature.

He resists against the actual reality adopting 'doing nothing but not doing nothing.' He dreams the absolute freedom through 'peripatetic enjoy.' In *A World of Artificiality*, The human's desire that makes him carry on the artificial life is sublimated to the pleasure. It becomes possible through protagonist's imagination of self-renunciation and writing of pleasure. Jung floats and changes himself in *A World of Artificiality*.

I analyze *A World of Artificiality* through Asian thought, especially Taoism. A World of Artificiality is the world of inaction and fiction. Jung's writing becomes the best way that the people, being confronted with the life that is made by artificiality, could carry on his life with maintaining his nature.

(Key Words : inaction, Young Moon Jung, imagination, resistance, freedom, insignificance, peripatetic enjoy, desire, vapor, uselessness, pleasure, transcendence,

396 대중서사연구 제30호

nature, Korea Literature)

투고일 : 2013년 10월 29일 투고

심사일 : 2013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3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0일 게재확정